

“科學진흥의 本質的 과제”

- 과학 대중화와 科學雜誌육성



金 學 洙
(西江大교수 · 言論學)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물결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가지에 기인된다.

첫째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상물정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과학활동의 바람직한 응용이 인류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믿는 한 과학활동 그 자체에 대하여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실현하는데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다.

多層化되고 多岐化된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매체의 간여(mediating)없이는 과학자와 일반대중이 상호 연결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과학대중화운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이란 거의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과학대중화운동

이 이미 제2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미국·영국·서독·캐나다·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과학관련 대중매체의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시도한 결과로, 이제 대중매체로 하여금 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일반대중들의 폭넓은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그들 나라들이 거의 완전한 언론자유와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週당 한페이지 반 이상의 고정과학란(Science Section)을 가진 일간신문들이 최근 2년동안에 3배나 증가한 것은 그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다음으로 과학관련 대중매체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정부를 비롯한 과학전문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 때문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매년 가장 우수한 업적을 남긴 과학관련 언론인들에게 賞을 수여하는 단체가

현재 무려 22개나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오랜 동안 왕립협회나 기관들을 통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자국내의 활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국제개발연구소(IDRC)내에 과학언론 활성화를 위한 전문부서를 두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들 선진국들은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과학대중화를 위해 대중매체의 언론인들에게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직접 뛰어 들어서 과학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이 소위 제2단계의 과학대중화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미국의 과학진흥협회(AAAS)에서 주관하는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언론활동 연수프로그램이나, 내년에 처음 수여할 예정인 과학대중화에 기여한 과학기술자賞의 제정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아울러 영국에서 몇개의 과학자단체들이 뭉쳐서 과학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COPUS)를 작년에 조직하여 금년부터 대대적인 각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과학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의 활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과학자들 스스로가 과학대중화운동에 대대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 제1단계인 과학언론의 활성화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문과 방송 같은 일반 대중매체가 과학기술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 10대 신문중의 하나에 꼽힌다고 뽑내는 모일간신문의 경우는 다른 중앙일간지들이 다 갖고 있는 과학부서 자체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인들을 연수시키는 언론연구원에서조차 언론의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과목들은 흔한데, 과학기술에 대

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과학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과목은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사실 과학기술 지식의 전문적 특수성 때문에 신문과 방송 같은 뉴스중심의 일반 보도매체에서 과학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잡지매체가 과학언론의 활성화에 보다 적합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잡지야말로 과학기술의 전문적 지식을 쉽게 풀어서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에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과학잡지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잡지야말로 과학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매체중 최적의 대중매체이며, 동시에 제1단계 과학대중화운동에서 제일 먼저 육성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잡지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그 존재여부가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혁명에 해당되는 7월 1일부터의 국내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특히 10월 1일부터 발효될 국제저작권협약(UCC) 가입에서 받게 될 과학잡지들의 수난은 불을 보듯이 흰하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극히 취약하고 전문적인 과학언론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잡지들이 외국의 과학기사들에 90%이상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서 외국에 저작권료까지 지불하면서 과학잡지를 발행하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슬기롭게 극복해야될 난제가 반드시 정치와 올림픽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과학대중화를 통한 밀바탕부터의 국력을 키우는 일이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절박한 과제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대중화를 위한 과학언론 활성화는 필수적이고, 그 안에서도 과학잡지의 육성은 매체의 특성이나 현실에 닥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